

여도 야도 '공천 룰'은 시한폭탄

새누리, 黨心 왜곡지역 예외적용 싸고 내용
신당도 호남 광역단체장 공천 충돌 불가피

6·4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앞두고 여야가 게임의 법칙인 '공천 룰'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 룰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3지대에 만드는 통합신당도 공천 룰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당헌 당규대로 대의원(20%), 당원(30%), 국민선거인단(30%), 여론조사(20%) 등 당원과 민심이 절반씩 반영되는 공천 룰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원을 무더기로 입당시켜 당원이 왜곡될 소지가 있는 지역이나, 경선이 과열된 지역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선출하도록 예외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심 왜곡 지역으로는 제주, 울산, 인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이 모두 지도부가 후보를 차출한 곳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차출한 원희룡 전 의원(제주), 김기현 정래위위원장(울산),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인천) 등을 배제하

기 위한 사실상의 '전략 공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흥행을 위해 30% 국민선거인단 비율을 대폭 늘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경선에서 당원 및 대의원 비중이 줄면서 당협위원장 영향력이 떨어지는 김황식 전 총리를 위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의회에서 야권의 통합신당 바람이 거센 가운데 내부에서 공천 룰 논란이 커지면서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차질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3지대 통합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야권도 '공천 룰'이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창당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별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 않지만 공천 룰을 놓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쟁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호남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룰이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월 말까지 제3지대 창당이 된다고 해도 공천 룰에서의 당원 경선 참여 여부를 놓고 양측이 세게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기존의 당원을 승계하는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승계할 당원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총선도가 높은 호남지역 당원을 경선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반면,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당원 경선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반영하듯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 공론조사 배심원제 등의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대한 양보한다 하더라도 박원순 서울시장 경선 룰(여론조사 30%, 지역 배심원 평가 30%, 시민 참여 40%)이 모범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도 당원 참여가 배제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천 룰을 두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지 않는다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당, 정책·노선 조율... 총론일치 각론충돌

민주·새정치, 대북·경제·복지분야 등 이견 보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통한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신당이 지향할 노선과 정책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지난 2일 통합을 선언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민생중심주의 노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을 신당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때문에 양측은 큰 틀에서는 이념과 노선에 있어 차이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구현할 세부적 정책 내용으로 들어가면 절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 민주당은 햇볕정책을 기본 뼈대로 제시하고 있지만 안 위원장은 이보다 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구체적으로 대북지원 등 각론에서 입장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지난날 11일 발

표한 '새정치플랜'에서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경제 분야에서도 결이 약간 다르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를 강조한다. 새정치연합도 "경제민주화가 경제 활성화를 밑거름으로 뒷받침되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별도로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틀을 내세워 "시민사회 집단의 공공적 사회경제에 활발히 참여해 국가와 시장을 감시·견제한다"는 대안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 정책에 있어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지원을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을 내세우며 사회보험 제도의 공공성과 보강성 확대, 공적 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복지 포플리즘'을 경계하며 보편적 복지보다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적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일단 민주당 측의 양보로 비전 및 정강정

민주당·새정치연합 주요 정책입장 비교

민주당	새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인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배 투명성·국민적 합의 신성한 인도적 지원 남북공동 번영 조율한 평화통일 외교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 중심의 경제민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적 시장경제 시민사회의 진언이 사회경제 참여 통한 국가 시장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편적 복지통한 복지국가 완성 사회보험 제도의 공공성과 보강성 확대 공적부조제도 및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 포플리즘 경계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점진적 순화적 방식의 확대 성장친화적 복지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 예산 증조한 조세 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개혁 선당 국민 동의하에 조세 추진

책, 당헌에 새정치연합 쪽의 구상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해 신당의 정책은 현재의 민주당 노선보다는 중도 색채가 더 짙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민주당 내 친노(친노무현)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노선·정책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시도교육감

강운태 " 챔피언스 필드 개장 시엔 감사"

재선에 도전하는 강운태 광주시장은 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 개장과 관련, 광주 시민의 성원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성명에서 "시민과의 약속이었던 야구장 건설을 위해 민선 5기 취임 직후부터 전곡 최초로 체육복권기금을 끌어오는 등 전력용을 쏟아왔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시민이 주인인 아름다운 야구장'을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호선을 새 야구장과 월드컵 경기장으로 연결되도록 한 만큼 새 야구장은 인근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동부에 신규 공공시설 우선 배치"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일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해 전남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공공시설은 동부권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부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동부권 주민들에 대한 배려 방안의 하나로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부끄럽다"면서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광주시장 후보와 공동 공약 발표"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8일 "통합 신당의 전남지사 후보가 되면 통합 신당의 광주시장 후보와 함께 공동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당선이 된다면 광역단체장 간 상시적인 협업체를 구성해 공동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남의 22개 시군이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며 전남 동서부 균형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기초단체장

서종진, 쌍용차 해고 노동자 모금 참여

서종진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노란봉투' 모금운동에 참여했다. 서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아름다운재단에 보낸 편지에서 "광산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가족공동체가 제대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 중소기업의 80%가 자리 잡고 있는 광산구에서 고용환경의 개선과 고질적 일자리창출 문제 또한 중요한 행정 의제"라며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가 곧 광산구 사회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송병태, 우산동 노인 점심대접 봉사활동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은 지난 8일 광산구 우산동 소공원에서 노인 점심대접 봉사활동을 펼쳤다. 송 전 구청장은 이날 "오늘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 것은 그동안 땀 흘려 일해 온 노인분들의 공이 지대하다"며 "노인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배식봉사를 마친 후 구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재신, 수완지구에 선거사무소 개소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유재신 광주약사회장이 지난 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건물에서 치러진 개소식에는 지역인사들과 주민들이 참석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이제는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오는 복지 시대가 필연적이다"면서 "생활정치에 중점을 둔 실용정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광주 서구청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성일 예비후보가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혜자 국회의원, 이용섭 국회의원, 임내현 국회의원과 종교인, 각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예비후보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으로 공부하고 뛰놀 수 있는 서구, 주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터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오랫동안 고민해왔다"며 "구경혁신으로 더불어 잘사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NAVER 검색엔진에 **단비플라워**를 검색해보세요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公 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행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행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흥암지점 | 653-4474